

30년 근속상



공로상



모범상



자원봉사자 공로상

4월 13일 개원 47주년을 맞이하여 시상식 및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오후 4시에 의성관 5층 김동국홀에서 진행된 개원 기념식에는 박관석 이사장을 비롯해 강동완 총장, 배학연 병원장 및 교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박관석 이사장-강동완 총장의 축사와 배학연 병원장의 기념사를 시작으로 ▲30년 장기근속 도남용 교수 외 36명 ▲20년 장기근속 김권영 교수 외 12명 ▲10년 장기근속 이미자 교수 외 47명 ▲공로상 김은영 교수 외 11명 ▲모범상 오재기 약사 외 17명 ▲자원봉사자 공로상 최숙자 등 모두 129명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축하했다.

또한 이에 앞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병원 정문 매직볼 앞에서 열린 '사랑의 헌혈' 행사는 개원 47주년을 기념하고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헌혈문화 확산에 동참하고자 많은 교직원들이 헌혈 행사에 적극 동참했다.

배학연 병원장은 "내부혁신과 환자중심의 의료체계를 갖추고, 새로운 발전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해 전 교직원의 단합이 중요하다"며 "개원 50년, 100년까지 조선대병원의 밝은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의지를 밝혔다.



제6기 예·지·모 자원봉사단 발대식

광주해바라기센터(센터장 배학연 조선대병원장)는 3월 23일 병원 2층 하중현홀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사업 관련 예·지·모(예방하고 지켜주기 모임) 자원봉사단 6기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발대식에는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학생 18명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하였고, 과거 1기부터 5기까지의 활동내역 및 추진경과 사향을 발표하였다.

광주해바라기센터는 2013년 42개 지역아동센터 90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에는 3,000여명이 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점차 교육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6기 예·지·모는 조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프로그램의 통해 올바른 성지식의 함양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아이들의 성의식 확립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희망나눔 닥터누리 협력사업’ 수행기관 선정



3월 14일 광주광역시청 3층 비즈니스 룸에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과 배학연 조선대병원장을 비롯해 이삼용 전남대병원장, 박홍주 전남대치과병원장, 최범재 시엘병원장, 손미경 조선대치과병원 진료부장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을 대표하는 조선대병원 및 전남대병원을 포함한 5개 의료기관과 ‘희망나눔 닥터누리 협력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선포식을 가졌다.

‘희망나눔 닥터누리 협력사업’은 개발도상국 등 해외의사들을 대상으로 우수 의료기술을 전수하는 연수프로그램으로써, 4월부터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몽골 등의 의료진을 초청해 최소 3개월 이상 연수를 시행한다. 이에 광주광역시는 항공비, 체류비 등 2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5개 의료기관은 각각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보철과 등 해당과 연수

생 선발과 프로그램 수립·운영 등을 맡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문경래 교수(조선대학교 호남권역재활병원장)는 ‘희망나눔 닥터누리 협력사업 추진단장’으로 위촉되어, 해외환자 유치 및 해당국가 진출 활성화 등 의료 네트워크 구축에 앞장 설 예정이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2015년 이후 보건복지부 선정 몽골국립의과대학 연수의를 대상으로 하는 ‘한·몽 연수 프로젝트’ 및 2016년 ‘한·러 보건의료협력 연수 프로젝트’ 수행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해당 국가의 의료인에 대한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최고의 의료기술 전수 등 전문 의료인을 양성하고 있으며, 그 외 인도, 베트남, 중국 등 전문의 과정(Fellow) 연수 프로그램을 통한 선진 의료기술을 전하고 있다. 또한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주변 동남아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학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시행하고 있다.

암센터 심포지엄 개최



3월 20일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제1회 암센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인공지능(AI)에 따라 작년에 도입한 ‘왓슨 포 온콜로지(Watson for Oncology)’의 활성화는 물론 암 치료의 최신 지견을 서로 확인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혈액내과 박상곤 교수의 ‘간 및 담도계 항암치료의 최신 지견’을 시작으로 약리학자 유호진 교수의 ‘악성암 진단 및 치료 표적 발굴과 효능규명’까지 심도있는 발표가 이어졌으며, 심포지엄에 참석한 많은 다학제 의료진의 열띤 토론으로 활기를 띄었다.

배학연 병원장은 “4차산업시대에 의료는 물론 모든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지역 내 혁신적인 암센터가 되도록 여러 의료진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심포지엄을 통해 암 연구 및 진료 환경 변화에 주역이 되자”고 소감을 밝혔다.

진취적 병원생활 위한 간우회 총회 개최

4월 26일 김동국홀에서 간우회 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총회는 김경애 간호교육팀장의 개회사와 기정숙 간호부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2017년도 사업결과와 2018년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되고 있는 간호사의 태움문화 근절 및 긍정적 직장생활을 위한 ‘간호사 긍정문화 선포식’을 가졌다.

또한 제7기 간우회 임원선거 및 신입회원 소개와 푸짐한 경품이 준비된 행운권 추첨으로 색다른 행사를 꾸미기도 했다.

한편, 조선대병원 간우회는 매년 정기총회를 갖고 간호사의 진취적인 병원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4회 영양집중지원팀(NST) 워크숍 성료



4월 6일 환자의 질병과 상태에 따라 최적의 영양지원을 통해 치료 효과 극대화를 위한 '2018년 제4회 조선대학교병원 영양집중지원팀(NST) 워크숍'을 성료했다.

이번 워크숍은 2015년 제1회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조선대병원이 개최하고 있는 행사로 광주·전남 영양집중치료에 관심있는 의사, 약사, 간호사, 영양사와 의료인을 꿈꾸는 관련학과 학생 등 180여명 이상이 참석해 환자 건강상태에 적합한 영양지원에 대한 각 분야의 역할과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행사는 배학연 병원장을 대신해 정종훈 기획실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복희 조선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노인대상 영양관리 프로그램 적용의 예' ▲김광준 조선대병원 약사 '소아 TPN의 안정성 관리와 투여 시 주의사항' ▲이미미 서울대병원 수간호사 'Issues in PN administration using in-line filter' ▲양혜란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소아 영양지원의 특수성' 순으로 발표와 논의가 진행됐다.

조선대병원 영양집중지원위원회 부위원장인 김경종 교수(외과)는 폐회사에서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 경우 영양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고통이 배가된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선도적인 영양지원프로그램으로 환자의 패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2018년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실시



3월 14일 오전 7시 병원 1층 로비에서 '2018년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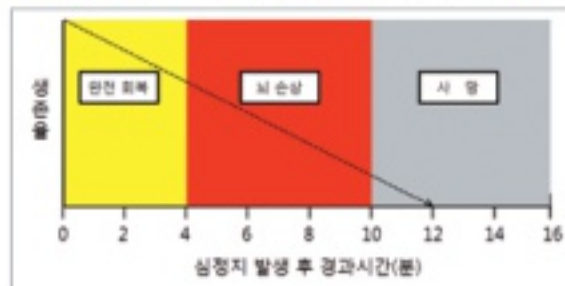
이날 행사에는 3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하며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위급상황 대처 방법을 교육받았다.

배학연 병원장은 "작년부터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화재사건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일어나며, 특히 병원이나 체육시설 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발생하며 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다"며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인 반복 훈련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자"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매년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해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며 올바른 대처법을 교육받고 훈련하여 환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해오고 있다.

2018년도 전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성료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7일까지 전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총 18회에 걸쳐 진행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마무리했다.

병원 전 교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마다 진행해오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교육 자료와 함께 응급의학과 교수진 및 응급구조사들이 교직원들에게 심폐소생술 절차 및 AED(자동체제동기) 사용법 등 상황별 대처요령에 대해 교육했다.

실제로 우리 병원 소아청소년과 노명일 교수와 산부인과 문서주 전공의 등 의료진들이 공항과 기내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솔선수범하여 응급처치로 환자를 살린 사례와 마라톤 행사중 발생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사용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린 국중이 총무부장의 사례를 보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해온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인해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출중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편, 심폐소생술(CPR: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은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멈추었을 때 의료인뿐 아니라 일반인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응급처치로 심정지 환자에게 골든타임인 4분안에 시행을 하는 경우 생존율이 90% 이상이기때 지속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사랑실은 건강천사' 순창군 구림면 의료봉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재)와 함께 3월 30일 전북 순창군 구림면으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순창군 구림면사무소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는 '사랑실은 건강천사' 구호를 외치며, 조선대병원의 의료진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이 제공한 진료서비스를 이용하여 봉사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의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의

료봉사활동에는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안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치과를 비롯하여 약사, 간호사, 행정 등 다양한 의료진이 참여하여 총 220여명의 주민에게 따뜻한 의로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한편, 조선대병원은 매년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 농어촌 의료사각지대에 의료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찾아가는 의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꽃향기 가득한 자원봉사자 힐링나들이



4월 20일 전남 순천만국가정원에서 '2018년 자원봉사자 힐링나들이'를 가졌다.

병원을 찾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천사의 마음으로 손발이 되어주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전하고, 봉사자들간 단합과 유대감 형

성을 위해 힐링나들이를 다녀왔다.

오전에는 병원 2층 하중 현관에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고충과 병원발전 위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오후

에는 순천만국가정원으로 이동하여 다양한 테마로 이루어진 꽃향기 가득한 정원 곳곳을 둘러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자원봉사자 장모(65세)씨는 "꽃이 만개한 순천만국가정원을 오니 기분이 날아갈 것 같다"며 "여러 봉사자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준 조선대병원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환자분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생명나눔실천본부와 함께 한 '밥차 무료 나눔행사'



3월 25일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입원중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밥차 무료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병원 정문 앞 대직물 앞에서 이뤄진 이날 행사에는 400여명이 넘는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이 방문했으며, 찹쌀·떡·다과 등 정성스럽게 마련한 도시락을 전해드리며 향긋한 봄의 온정을 전달했다.

이에 환자와 환자보호자들은 "정성을 다해 준비해준 도시락에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는 듯 하다"며 입을 모아 감사의 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생명나눔 '공익진밥차'는 호남의 대표 무용가인故 공옥진 여사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딸인 김은희씨와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가 운명하고 있으며, 두 단체는 20년 가까이 김장김치와 동지팔죽 등 나눔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지난 4월 2일, 다급한 전화가 한 아이의 아버지에게 울렸다.

"지금 따님이 열성경련이며 다른 경우와 다르게 복합성 경련이 찾아와 호흡이 안 되고 매우 위험하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이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모든 일을 멈추고 조선대병원으로 달려왔다.

그 시간 119 앰블런스 안에서는 근처 다른 병원에 환자 상태를 말하며 진료를 의뢰하였지만, 되돌아오는 답변은 '아이를 받아 줄 수가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 되고 있었다.

아이의 어머니는 수백번, 수천번 아이의 이름만 외치며 절규했고, 마지막으로 조선대병원에 전화를 하니 빨리 오라는 답변과 함께 끝이어서 조선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하였다.

복합성 경련이 심해지면 뇌손상과 더불어 장기손상까지 의심되는 매우 위급한 상황. 이때 응급실 의료진은 아이 부모님에게 말했다. "어떻게든 살려보겠습니다." 지속적인 항경련제의 투입으로 경련이 잦아들면서, 아이는 응급실에서 응급병동으로, 소아병동(73병동)의 집중치료실로 옮기게 되었고, 아이를 치료하는 의사 및 간호사들의 "희망을 잃지 말라"는 말에 다시금 아이의 손을 잡으며 실낱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다.

이제는 상태가 호전이 되어 소아병동(73병동) 일반병실로 옮기게 된 아이는 간호사들과 눈을 맞추며 웃음을 지어 보이고 있다.

기적처럼 한 가족에게 희망을 찾아준 응급실, 응급병동, 소아병동(73병동) 집중치료실에서의 모든 간호사와 김형석 주치의, 조아영 주치의, 김가희 주치의와 노영일 교수 등 모든 의료진에게서 진정 환자를 위한 진심을 느껴본다.

-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임OO양 보호자의 편지를 각색 -



정형외과 근골격계 연구실 확장 이전



최근 정형외과 근골격계 연구실이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2호관 1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정형외과 근골격계 연구실에서 수행중인 연구로는 골 전이성 암종의 전이과정 및 골다공증 치유를 위한 기전 탐색, 그리고 근골격계 질환 동물 모델 개발 등의 기초 연구와 3D 프린팅을 통한 근골격계 대체 조직 개발, 코팅 및 표면개질을 통한 마모도가 현저히 낮은 정형외

과 임플란트 개발 등의 다양한 응용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4년간 산업 통상부에서 7건, 교육부에서 5건 그리고 산업체에서 4건의 연구과제 등 총 23억원의 연구비를 수주했으며, 현재까지 약 20여편의 국제학술지 등재 논문을 발표하고 대한 정형외과학회, 미국 정형외과 연구학회 등 국내외 유수의 학회에서 학술발표를 수행해오고 있다.

한편, 근골격계 연구실은 2014년 5월에 개설됐으며 전임 연구 인력으로는 의과대학 임원봉 교수와 박사후(post doctor) 연구원 1인, 박사과정 2인, 석사과정 1인과 연구원 2인 등 총 7인으로 구성되어 근골격계의 기초 및 임상응용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제4기 2차 몽골 연수 전공의 수료식



4월 17일 병원 10층 회의실에서 몽골 연수 전공의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에 수료하게 된

델경(Sumberzul Dulguun),

잉호새홍(Purvee Enkhsaikhan), 철명(Batkhuu Tsolmon)은 각각 흉부외과, 비뇨기과, 신경외과에서 3개월간 연수교육을 수료하였다.

특히, 오송 메드트로닉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예정된 동물 실험과 시뮬레이터 실습으로 본 교육 과정보다 일주일 먼저 수료하게 된 잉호새홍과 철명은 향후 몽골로 돌아가 몽골 의료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연수를 마친 이들은 "조선대병원의 교육을 토대로 자국에 돌아가서도 한국과 의료교류에 이바지 하겠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보건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감염내과 김동민 교수



감염내과 김동민 교수는 4월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018년도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보건의 날 기념식은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보건의료분야 발전에 기여한 보건 의료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로, 김동민 교수는 질병관리

본부로부터 추천 받아 인수공통 감염병 및 매개체 감염병 연구 등에 대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김동민 교수는 발열성 감염병 연구에 헌신, 감염병 예방관리와 병원 내 감염관리를 통한 감염병 전파 차단 등 지역은 물론 범국가적인 감염관리에 앞장서 왔다.

김동민 교수는 "보건의료인으로서 신속 진단법 과 치료법 개발 및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노력은 당연한 임무임에도 큰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진단법개발, 예방과 치료를 위해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재활의학과 김권영 교수



재활의학과
김권영 교수

재활의학과 김권영 교수는 4월 7일 제46회 세계 보건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장애인의 건강증진 향상에 앞장서는 의료인으로써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도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했다.

제2대 호남권역재활병원장을 역임하고 조선대병원 재활의학과장으로 재직중인 김권영 교수는 광주광역시 동구 CBR(지역사회중심재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지역민의 재활건강에 앞장서고 있는 재활의학의 권위자이다.

한편, 김권영 교수는 지역사회보전소에서 시행하는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분야에서 재가장애인들을 위해 직접 방문하여 수년째 해당 장애인들에게 재활상담 및 진료, 치료 등을 꾸준히 수행해오고 있다.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

신경외과 김석원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8년판에 등재되는 영광을 안았다.

김석원 교수는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및 미세침습척추신경외과학회 정회원으로 활발한 연구활동을 보이며 뇌신경 및 척추신경손상환자의 치료에 관한 다수의 논문발표 등으로 대한신경외과학회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진료와 연구 업적을 인정 받아 등재되었다.

현재 김석원 교수는 신경 및 척추분야 전문의로서 의료활동은 물론 교육연구부장과 진료부장을 역임하며 진료와 연구분야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부터 매년 세계 215개국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에서 권위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미국인명정보기관(ABI) 등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의료
칼럼

연부조직종양, 가볍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정형외과
조용진 교수

외래 진료실에서 만난 김영수(가명) 씨는 연배에 비해 젊고 건강해 보였다. 청년시절 축구를 좋아했고 40대 중반 시작한 등산을 이십 여 년간 매주 즐기고 있다. 몇 개월 전 사우나를 하다가 어깨 뒤편 볼록하게 만져지는 종물을 알게 되었지만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아서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평소 친한 의사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어봤지만 그냥 기름 덩어리일 거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최근에는 주위 사람들로 부터 어깨 운동 시작하셨냐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으나, 사실은 무시했던 등 뒤편 덩어리가 커지면서 한 쪽 어깨 뒤편만 두드러지게 튀어 나오고 있었다. 여전히 통증이나 불편감은 없었지만 커지는 덩어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수소문 끝에 골 및 연부조직 종양 전문의를 찾아 왔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부조직 종양은 통증이 없다. 모양이나 형태, 크기는 다양하지만 신경종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연부조직 종양은 통증이나 연관 증상이 없어서 발견이 늦어지거나 환자가 알고 있으면서도 전문적인 진료를 받을 때까지 상당한 시일을 경과하는 경우가 많다. 몸통, 어깨, 허벅지, 팔, 다리에 만져지는 덩어리들 중 지방종, 결절종 등 양성 종양이 상당히 흔하고, 일차 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들 역시 이러한 종물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아서 초음파 검사 등 간단한 검사 후 경과 관찰만을 시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최근 갑자기 커진다는지, 만지면 아프다는지, 몸통이나 어깨, 허벅지 등에서 만져지는 경우라면 전문적인 진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종물이 깊게 위치하는 경우 자세에 따라 만져지다가 사라지기도 하며 특정 자세에서만 두드러져 보이기도 한다. 연부조직 종양의 경우 일차적으로 단순 방사선 검사와 초음파를 통해서 주위 조직과의 관계와 대략적인 크기, 혈관 분포 등을 알 수 있다. 몸통, 어깨, 허벅지의 경우 종물의 직경이 5cm 이상, 팔, 다리의 경우 3cm 이상, 근육층을 침범하거나 주위로 침윤되는 양상인 경우, 자기 공명영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소견에 따라 조직 검사를

시행하게 된다. 연부조직 종양은 종류가 많고 각각에 적합한 치료 방법 역시 다양하다. 작은 크기의 지방종의 경우 경과 관찰만으로 충분하나 크기가 크고 몸 깊숙하게 위치한다면 절제술과 병리 검사가 필요하다. 손이나 발에 발생한 결절종이나 거대세포종, 섬유종 등 작은 덩어리들은 조직 검사 없이 단순 절제술만으로 완치하기도 한다. 무릎 뒷면에 발생하는 물렁거리는 길쭉한 덩어리인 베이커씨 낭종은 나이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다르지만 슬관절 이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슬관절에 대한 적절한 검사 및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육종이나 활액막육종 등 악성 종양의 경우, 광범위 절제술과 재건술이 반드시 필요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 등을 추가할 수 있다.

조직검사상 지방육종으로 진단 받은 김영수(가명)씨는 다행히 종양이 깊지 않아 광범위 절제술을 시행 받았고, 절제면에 대한 추가 검사 상 충분한 안전역을 포함한 것으로 판단되어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는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 통증이나 불편감이 없다고 전문의를 찾아 오는 것을 더 늦췄다면 김영수씨는 훨씬 더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을 받아야 했거나, 수술 후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피하지 못했을 것이다. 몸통이나 어깨, 허벅지, 팔, 다리에서 만져지는 덩어리는 증상이 없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라 골 및 연부조직 종양 전문의의 진료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이다.

한편, 정형외과 조용진 교수는 골 및 연부조직종양, 소아정형외과 분야를 맡고 있다. 전남대학교병원과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해당 분야에서 조교수를 역임하였고, 대한골관절종양학회, 대한소아정형외과학회, 대한골연장변형교정학회 등에서 학술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병원
소식

CHOSUN UNIVERSITY HOSPITAL



2018년 보직 및 직책 임명

〈3월〉

○ 보직 임명자(가나다 순) - 4명

- ▲ 총무부장 국중미
- ▲ 재무팀장 송연옥
- ▲ 특수사업팀장 이성국
- ▲ 병동간호2팀장 최경희

〈5월〉

○ 보직 임명자(가나다 순) - 4명

- ▲ 교육수련팀장 김영신
- ▲ 병동간호1팀장 김희숙
- ▲ 수술간호팀장 안경숙
- ▲ 약무팀장 장혜영

○ 직책 임명자(가나다 순) - 5명

- ▲ 특수부서간호팀 김미숙 수간호사
- ▲ 종합건강증진센터 김선 파트장
- ▲ 병동간호1팀 조연우 수간호사
- ▲ 병동간호2팀 주선옥 수간호사
- ▲ 병동간호1팀 탁효희 수간호사

○ 직책 임명자(가나다 순) - 5명

- ▲ 감염관리실 김명숙 수간호사
- ▲ 수술간호팀 김정희 수간호사
- ▲ 병동간호2팀 양미경 수간호사
- ▲ 병동간호1팀 이애경 수간호사

2018년 1차 스마일 교직원 및 부서



성형외과 최민협



53병동 변현정



원무팀 최일수



소아청소년과

2017년 4분기 손 위생 우수직원

최우수상

외과
유영선산부인과
이은정특수부서간호팀
이홍주

우수상



교육연구부 김우신



병동간호1팀 최미정



병동간호2팀 정현아



응급의료센터 천세현



특수부서간호팀 정지혜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모금캠페인

- 참여방법 : 발전기금약정서 작성 후 기획실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약정서 : 병원 홈페이지의 발전기금/발전기금후원하기 바로가기를 통해 다운로드)

- 납부방법 : 온라인입금 또는 직접 납부

- 온라인입금계좌

광주은행 002-107-000819, 예금주 : 조대병원
농협중앙회 605-01-009496, 예금주 : 조대병원장

- 직접 납부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10층) 방문

- 문 의 : ☎ 062) 220-3732 Fax. 062) 227-3215
조선대학교병원 기획실 발전기금담당

- 해 택 : 기부금액은 법정기부금이며, 국가가 인정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병원에서 제공하는
기부자 여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약정현황

(2018. 1. 1. ~ 5. 4.)

(단위: 원)

번호	소 속	성 명	약정금액	누 계
1	기업인	제*퍼정	5,000,000	5,000,000
2	학부모	박*희	500,000	500,000
3	교직원	오*순 등 4명	5,100,000	40,971,470
합 계			10,600,000	

♣ 조선대학교병원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